

##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

### - 한국어 행위주 표지와 중국어 피동 표지 대비 중심으로 -

우 동 동\*  
(신라대학교)

김 인 균\*\*  
(신라대학교)

#### ◆ 국문초록

본고는 피동 표현에서의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bèi]/让[ràng]/叫[jiào]/给[gěi]'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그 분포 양상 및 특징을 살피고 이들 형태를 비교 대조를 통하여 그 대응 관계를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대조 분석 시 두 언어의 유형적 특징, 피동 표현에서의 행위주, 피동주에 대한 선택 제약, 그리고 '받다'류 피동 표현에서 행위주(피동) 표지의 사용 제약과 같은 3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본 대조 분석을 통해 확인한바, 한·중 피동 표현에서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는 각각 행위주와 결합하여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용법에 있어 차이점을 보였다.

먼저 두 언어 유형적 특징에 따라 피동 표현에서 행위주와의 결합 방식이 각각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행위주 표지는 오로지 조사 역할을 하여 '행위주 유정성 유무'에 대한 제약만 받는 반면,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는 각각 문법화 정도에 따라 행위주 유무뿐만 아니라 피동주 유정성 유무 그리고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에 따른 제약 등을 보인다. 특히 한국어 '받다'류 피동 표현에서 한국어의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피동 표지 사용에 여러 제약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피동 표현, 대조 분석, 행위주 표지, 피동 표지, 대응 관계

\* 제1저자  
\*\* 교신저자

## I. 서론

지금까지 한·중 대조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어 피동 표현에 관한 중국어 피동 표현과의 대조 분석도 그러한데, 대부분 중국어 ‘被’자 피동문을 한국어 피동 표현과 대조 분석한 것들이다. 그런데 한·중 피동 표현 대조 분석에서 아래 (1ㄴ), (2ㄴ)에서 보듯이 한국어 행위주 표지<sup>1)</sup>에 대응하는 중국어의 다양한 피동 표지<sup>2)</sup>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 |        |      |           |      |       |
|--------|------|-----------|------|-------|
| (1) ㄱ. | 호랑이가 | 토끼를       | 먹었다. | (능동문) |
|        | 주어   | 목적어       | 서술어  |       |
| ㄴ.     | 토끼가  | 호랑이에게     | 먹혔다. | (피동문) |
|        | 피동주  | 행위주       | 피동사  |       |
|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       |
| (2) ㄱ. | 老虎   | 吃 了       | 兔子。  |       |
|        | 주어   | 서술어       | 목적어  |       |
| ㄴ.     | 兔子   | 被/让/叫/给老虎 | 吃 了。 |       |
|        | 피동주  | 행위주       | 서술동사 | 완결어미  |
|        | 주어   | 부사어       | 서술어  |       |

한국어 피동 표현의 경우 (1ㄴ)에서 확인되는바, 능동문 (1ㄱ)에 있는 목적어 ‘토끼’는 피동주 주어가 되고 주어인 ‘호랑이’는 ‘-에게’가 붙어 행위주로서의 부사어가 되어, 각각 능동문 서술어가 바뀐 피동사 ‘먹혔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어 피동 표현의 경우는 (2ㄴ)에서 확인되는바, 능동문 (2ㄱ)에 있는 목적어 ‘兔子(토끼)’는 피동주 주어가 되고 주어인 ‘老虎(호랑이)’는 ‘被[bèi]/让[ràng]/叫[jiào]/给[gěi]’ 등과 같은 개사(介词)<sup>3)</sup>가 붙어 행위주의 부사어가 되어, 각각 ‘吃

1) 한국어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에게(한테), -에, -로, -에 의하여’와 같은 조사 및 그 상당 표현을 본고에서는 ‘행위주 표지’라고 한다. 본고는 이 중 ‘-에게(한테), -에, -로’만 다룬다.

2) 본고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被[bèi]/让[ràng]/叫[jiào]/给[gěi]’와 같은 개사류들을 ‘피동 표지’라고 한다.

(먹다)'라는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피동 표현에서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 등은 피동문의 행위주를 이끌어 내면서 그 결합형들은 통사 구조상 피동문 서술어의 부사어 문장 성분 기능을 한다.

한편 한·중 피동 표현에 대한 오류 조사 분석에 따르면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 한국인 학습자들은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와 '-에, -로'나,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에 대한 누락이나 오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sup>4)</sup>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현에서의 행위주 표지 '-에게', '-에, -로' 등과 중국어 피동 표현에서의 피동 표지 '被/让/叫/给' 등의 분포 양상 및 특징을 알아보고 두 언어 피동 표현에서의 이들 형태들을 비교 대조하여 그 대응 관계를 면밀히 고찰해 봄으로써 기존 대조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한다.

3) 刘月华·潘文娛·故韦华(2001), 朱德熙(2002)에 따르면 개사(介词)는 허사(虛詞)의 일종으로 대부분 동사에서 문법화(虛化)되었기 때문에 동사와 비슷한 점이 있다. 개사는 명사(구) 앞에 위치하며 명사(구)와 함께 개사구를 구성한다. 개사 뒤의 명사나 대사[대명사]는 개사의 목적어이고 개사구는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며, 동작 행위, 성질과 관계있는 시간, 장소, 방식, 범위, 대상 등을 표현한다. (“介词是虚词的一种。大多数介词是由动词虚化而来的，因此介词的语法特征还与动词有些相似之处。介词位于名词(短语)，代词构成介词短语，介词后的名词或代词是介词的宾语。介词短语在句子里作状语，作用是介绍出跟动作行为，性质有关的时间，处所，方式，范围，对象等。)

한편, 刘月华·潘文娛·故韦华(2001)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의 품사는 일반적으로 12종류로 나눈다. 이는 다시 구체적 의미를 지닌 실사(實詞)와 추상적 의미를 지닌 허사(虛詞)로 나눌 수 있는데, 실사에는 명사(名詞), 동사(動詞), 형용사(形容詞), 수사(數詞), 양사(量詞), 대사(代詞)가 있고, 허사에는 부사(副詞), 개사(介詞), 접속사(連詞), 조사(助詞), 감탄사(嘆詞), 의성사(像聲詞)가 있다.

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张京青(2015)의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 중 하나로 이들 조사의 오용을 들고 있다. 그리고 郭晓玮(2008)에 따르면 외국인 중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중국어 피동 표현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피동 표지의 누락이나 오용이 많이 나타난다.(标志被动词中的标志是不可以省略的，然而很多学生却常常忽视这一点，遗忘了标志词造成偏误。无标志被动句中使用‘被’字，造成偏误。)

## II.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앞에서 언급한바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는 한국어 피동문과 중국어 ‘被’자 피동문과의 대조 분석이 대부분이다. 중국어 ‘让’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 ‘给’자 피동문은 ‘被’자 피동문을 고찰하면서 덧붙여 조금 설명을 덧붙이거나 ‘被’자 피동문만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기영(2001), 양철(2009), Wang Duan(2012), 왕차오(2013) 등이 있다.<sup>5)</sup> 그런데 중국어 피동 표현에는 ‘被’자 피동문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讓’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 ‘给’자 피동문이나 ‘遭[zāo], 受[shòu]’류 피동 표현 그리고 무표지 피동 표현도 존재하기에 ‘被’자 피동문 중심으로만 한국어 피동 표현과 대조 분석하면 그 연구의 한계를 보이게 되어 한·중 피동 표현 대조 분석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면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被’자 피동문 중심으로 대조 연구하는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부 논문에서는 ‘讓’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 ‘给’자 피동문 또는 ‘遭, 受’류 피동 표현, 의미상의 피동 표현을 포함하여 살피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게 된다. 먼저 ‘遭, 受’류 피동 표현을 유표지 피동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 무표지 피동 표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다. 왕진곤(2013), 張興旺(2003), 우동동(2015)에서는 ‘遭, 受’류 피동 표현을 유표지 피동문으로 본다.<sup>6)</sup> 즉 ‘遭, 受’도 피동 표지

5) 이기영(2001)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의미상의 피동문과 형식상의 피동문으로 나누고 의미상의 피동문을 형태에 따라 10종 형식으로 분류하면서 형식상의 피동문은 오직 ‘被’자 피동문만 인정하였다. 양철(2009) 또한 중국어 피동 표현을 크게 의미상의 피동문과 형식상의 피동문으로 나누고 형식상의 피동문인 ‘被’자 피동문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한편 Wang Duan(2012)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유표지 피동문과 무표지 피동문으로 나누고 중국어 유표지 피동 표현으로 ‘讓’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 ‘给’자 피동문도 인정하면서도 ‘被’자 피동문 중심으로 대조 분석을 하였다. 왕차오(2013) 또한 이와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6) 왕진곤(2013)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1)유표지 피동문(‘被’구문, ‘叫’구문, ‘讓’구문, ‘给’구문) 2)기타 유표지 피동문(‘遭’구문, ‘受’구문) 3)무표지 피동문 등 3가지로 분류하였다. 張興旺(2003)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아래 표와 같이 분류하였다. 한편, 우동동(2015)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표지 유무에 따라 유표지 피동 표현과 무표지 피동 표현으로 나누고, 유표지 피동 표현에 대하여

의 일종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와 달리 양금평(2013), 乔莎莎(2015)에서는 ‘遭, 受’류 피동 표현을 무표지 피동 표현으로 본다.<sup>7)</sup> 곧 ‘遭, 受’는 피동 의미를 표현하는 동사이지 피동 표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본고 또한 ‘遭, 受’류 피동 표현은 유표지가 아닌, 무표지 피동 표현으로 보고자 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3) ㄱ. 警察 逮捕 了 他.  
주어 서술어 목적어  
⇒ 경찰이 그를 체포했다.

‘被/叫/让/给’ 피동 표현, ‘遭, 受’류 피동 표현, ‘被(叫, 让)...给’ 구문 그리고 ‘被(为)...所’ 구문을 살피고 무표지 피동 표현은 의미상의 피동 표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现代汉语被动句 (현대중국어피동문)	标志型被动句 (표지형피동문)	介标型被动句 (개사표지피동문)	单介标被动句 (단일개사표지피동문)
			双介标被动句 (복합개사표지피동문)
		动标型被动句 (동사표지피동문)	单动标被动句 (단일동사표지피동문)
			双动标被动句 (복합동사표지피동문)
	无标志型被动句 (意念被动句) (무표지피동문)	相对无标志被动句 (비교적무표지피동문)	
		绝对无标志被动句 (절대적무표지피동문)	

7) 중국어 피동 표지 분류 근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양금평(2013)에서는 중국어 피동 표현을 유표지 피동 표현과 무표지 피동 표현으로 나누어, 유표지 피동 표현은 ‘被’자문, ‘给’자문, ‘让’자문, ‘叫’자문으로, 무표지 피동 표현은 ‘遭, 受’류 피동 표현과 의미상의 피동 표현으로 정리하고 논의하였다. 게다가 중국어 ‘被(让, 叫)...给/所’ 구조를 ‘복합표지 피동문’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본고도 이를 견지하여 중국어 피동 표현 분류에 대하여 같은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 ‘被(让, 叫)...给/所’ 구조에서 ‘给/所’는 피동 표지 아니고 조사(助詞)이기 때문에 ‘복합표지 피동문’로 보지는 않는다. 乔莎莎(2015)에서는 중국어 피동 의미를 표현하는 ‘遭, 受’를 피동 표지가 아니라고 하였다.

- ㄴ. 他 遭 到 了 警察的 逮捕。  
 피동주 서술동사 보어 동태조사 행위주  
 주어 서술어 관형어 목적어  
 ⇒ 그는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
- ㄷ. 老师 表扬 了 他。  
 주어 서술어 목적어  
 ⇒ 선생님이 그를 칭찬하였다.
- ㄹ. 他 受 到 了 老师的 表扬。  
 피동주 서술동사 보어 동태조사 행위주  
 주어 서술어 관형어 목적어  
 ⇒ 그는 선생님에게 칭찬을 받았다.

(3ㄱ), (3ㄷ)은 능동문이고 (3ㄴ), (3ㄹ)은 이에 대응하는 ‘遭, 受’류 피동 표현이다. (3ㄱ), (3ㄷ)에서 행위주인 ‘警察, 老师’는 (3ㄴ), (3ㄹ)에서 목적어 ‘逮捕, 表扬’의 관형어로 기능하고 (3ㄱ), (3ㄷ)에서 서술어 ‘逮捕’, ‘表扬’은 (3ㄴ), (3ㄹ)에서 목적어 기능을 하게 되었다. ‘遭, 受’는 원래 ‘당하다, 입다, 받다’와 같은 피동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3ㄴ), (3ㄹ)에서 서술동사로 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피동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곧 피동 표지 ‘被’자, ‘让’자, ‘叫’자, ‘给’자가 개사로서 허사의 일종으로 문장에서 문법 기능을 하고 있는 반면에 ‘遭, 受’는 동사라는 개념 성분으로 피동 의미를 표현한다.<sup>8)</sup> 그리고 앞에서 살핀바 중국어 피동 표현의 통사 구조를 보면 ‘被’자, ‘让’자, ‘叫’자, ‘给’자는 행위주과 결합해서 서술어에 대해 부사어 역할을 하지만, ‘遭, 受’는 행위주 앞에 위치하기는 하나 보어 및 동태조사와 결합해서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遭, 受’는 피동 의미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피동 표지는 아니다. 곧 중국어 피동 표지는 ‘被’자, ‘让’자, ‘叫’자, ‘给’자이다.

한편 제영(2010)에서는 한국어 피동 표현에서의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 -에 의하여’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자, ‘让’자, ‘叫’자, ‘给’자

8) 方师鐸(1979: 257)에 따르면 실사는 문장에서 개념 성분으로 의미를 표현하나 허사는 대부분 문법 관계를 나타낸다.(我们把‘实词’当作代表概念成分’的话; 那么, ‘虚词’就是代表语法成分’的语词了.)

를 각각 살펴보고 구조상의 차이점을 거칠게나마 제시하여 의미가 있다. 그러나 각 언어 간의 피동 표현에 대한 형태와 구조를 면밀히 대조 분석하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하였다. 사실 한·중 피동 표현 대조 분석 시 한국어 행위주 표지인 ‘-에게(한테), -에, -로, -에 의하여’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자, ‘让’자, ‘叫’자, ‘给’자를 중심으로 연구한 성과는 매우 드물다. 그리고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들이나 중국어 한국인 학습자들이 피동 표현을 사용할 때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와 ‘-에, -로’나,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에 대한 누락이나 오용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우리는 먼저 한국어 피동 표현에서의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 등의 분포 양상을 간단히 살피고 중국어 피동 표현에서의 피동 표지 ‘被/让/叫/给’ 등의 분포 양상 및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두 언어의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이들 형태들에 대해 비교 대조하여 그 대응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 III. 한국어 행위주 표지와 중국어 피동 표지

#### 1. 한국어 행위주 표지

한국어에서는 본래 능동문의 주어였던 피동 표현의 행위주가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결합하여 부사어로서 능동문 서술어가 바뀐 피동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때 나타나는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는 각각 몇 가지 제약에 의해 분포 양상의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 간단히 살펴본다.

##### ▶ ‘-에게(한테)’

한국어 조사 ‘-에게’는 선행 체언에 대해 ‘위치·소재지, 대상, 주체, 기준, 주어에 행위를 가하는 자’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 중

9) 슬지엔(2009: 65-72)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2002)의 기준으로 조사 ‘-에게’에 대한 의미를 ①위치·소재지 ②대상 ③주체 ④기준 ⑤주어에 행위를 가하는 자

한국어 피동 표현에 쓰이는 ‘-에게’는 ‘주체’의 의미, 곧 본고의 ‘행위주’의 의미를 나타낸다. 다음에서 확인되는바 행위주 표지 ‘-에게’는 항상 [+유정성]의 행위주에 붙고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 표현, ‘받다, 되다, 당하다’에 의한 피동 표현 그리고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게’는 문어체에 많이 쓰이고, ‘-한테’는 구어체에 많이 쓰인다.

- (4) 가. 그 사람이 호랑이에게 물렸다.  
 나. 철수가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다.  
 다. 다행히 그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었다.  
 라. 우리 수도가 적들에게 공격당했다.  
 마. 그 신발 끈이 철수에게 풀어졌다.  
 바. \*춧불이 바람에게 흔들린다.

#### ▶ ‘-에, -로’

아래에서 알 수 있듯이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행위주 표지 ‘-에, -로’는 ‘-에게(한테)’와 마찬가지로 ‘-이-, -히-, -리-, -기-’에 의한 피동 표현뿐만 아니라 ‘되다, 당하다, 받다’에 의한 피동 표현 그리고 ‘-어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에게(한테)’와 달리 항상 [-유정성]의 행위주에 붙는다. 한국어 조사 ‘-에’는 선행 체언에 대해 ‘처소·자리, 시간, 원인·이유, 대상, 상황·출진, 기준, 자격, 도구·수단, 단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 중 한국어 피동 표현에 쓰이는 ‘-에’는 ‘원인·이유’ 혹은 ‘도구·수단’의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한국어 조사 ‘-로’는 ‘방향·지향점, 방식·양상, 재료·도구·수단·방법, 변화·변성(變成), 자격·신분·명성, 판단, 원인·이유, 시간’ 등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이 중 한국어 피동 표현에 쓰이는 ‘-로’는 ‘원인·이유’ 또는 ‘재료

등 다섯 가지의 용법으로 정리하였다.

10) 슬지엔(2009: 36-57)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2002)의 기준으로 조사 ‘-에’에 대한 의미를 ①처소·자리 ②시간 ③원인·이유 ④대상 ⑤상황·출진 ⑥기준 ⑦자격 ⑧도구·수단 ⑨단위 등 아홉 가지 용법으로 정리하였다.

11) 슬지엔(2009: 22-35)에서는 《연세한국어사전》(2002)의 기준으로 조사 ‘-로’에 대한 의미를 ①방향·지향점 ②방식·양상 ③재료·도구·수단·방법 ④변화

· 도구· 수단· 방법'의 의미를 나타낸다. 결국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행위 주 표지 '-에, -로'는 '원인· 이유'나 '재료· 도구· 수단· 방법'이라는 공통적인 의미를 지닌다.<sup>12)13)</sup>

- (5) ㄱ. 그 사람은 경찰에 쫓기고 있다.  
 ㄴ. 운동장이 잡초에/로 덮여 있다.  
 ㄷ. 산길이 큰 눈에/으로 막혔다.  
 ㄹ.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다.  
 ㄹ.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었다./체포당했다.  
 ㅂ. 무단 조퇴한 그는 회사 측에 처벌받았다.  
 ㅅ. 이 식품은 단백질과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다./이루어져 있다.  
 ㅇ. \*토끼가 호랑이에/로 먹혔다.

한편, 피동 표현에 나타나는 '-에', '-로'가 '원인· 이유'나 '재료· 도구· 수단· 방법'이 아닌 '자격· 신분· 명성'의 의미를 쓰인 경우도 있다.

- (6) ㄱ. 철수가 (우리에게) 우리 반 반장에/으로 뽑혔다.  
 ㄱ'. 우리가 철수를 우리 반 반장에/으로 뽑았다.  
 ㄴ. 영수가 (김 감독에게) 축구 국가대표에/로 발탁되었다.  
 ㄴ'. 김 감독이 영수를 축구 국가대표에/로 발탁하였다.  
 ㄷ. 그 사람이 (사장에게) 비서실장에/으로 임명되었다./임명받았다.  
 ㄷ'. 사장이 그 사람을 비서실장에/으로 임명하였다.

· 변성(變成) ⑤자격· 신분· 명성 ⑥판단 ⑦원인· 이유 ⑧시간 등 여덟 가지 용법으로 정리하였다.

12) 슬지엔(2009: 90-91)에서 언급한 대로 '-에'와 '-로'는 모두 '원인· 이유'를 나타낼 수 있는데 쓰임에 있어 차이가 보인다. 곧 '-에'는 앞에 오는 체언이 직접적이고 실제의 사물에 의한 원인인 경우에 쓰이고 '-로'는 전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원인인 경우에 쓰인다. 자세한 논의는 이희자 외(2001: 693) 참조.

13) 한국어에서는 (5ㄴ)과 (5ㅅ) 모두 피동 표현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슬지엔(2009: 84)에 따르면 중국어에서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5ㄴ)은 '运动场被草地覆盖着.'처럼 피동 의미를 가지는 개사 '被'를 사용하여 피동 의미를 표현하지 만, (5ㅅ)은 '这个食品是由蛋白质和脂肪组成的.'과 같이 개사 '由'를 사용하여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중국어 피동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6ㄱ, ㄴ, ㄷ)은 피동 표현이고 (6ㄱ', ㄴ', ㄷ')은 그에 대응하는 능동 표현이다. 두 표현 모두 '-에'와 '-로'가 '자격·신분·명성'의 의미를 가진다. 즉 피동 표현 (6ㄱ, ㄴ, ㄷ)에 나타난 '-에'와 '-로'는 행위주 표지로 기능하지 않는다.<sup>14)</sup>

## 2. 중국어 피동 표지

중국어 피동 표지에는 주로 '被', '讓', '叫', '給'가 있으며 이들은 각각 '被'자 피동문, '讓'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 '給'자 피동문을 구성한다.<sup>15)</sup> '被' 피동문은 상황에 따라 구어에서도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문어에 주로 사용되며 '給'자 피동문, '讓'자 피동문, '叫'자 피동문은 구어에 주로 사용된다.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讓/叫/給'자는 모두 행위주 앞에 위치하여 피동문의 행위주를 이끌어 내고 그 결합형들이 통사 구조상 피동문 서술어의 부사어 역할을 하나 여러 용법적 차이점도 보이고 있다.

### ▶ '被'

중국어에서 '被'자는 피동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가 99%로 온전한 피동 표지라고 할 수 있다. 곧 '被(피)'자문이 대표적인 중국어 피동 표현이다.

- (7) ㄱ. 警察抓住了小偷。(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ㄴ. 小偷被警察抓住了。(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ㄴ'. 小偷被抓住了。(도둑이 잡혔다.)

(7ㄴ)은 능동문 (7ㄱ)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피동주, 피동 표지, 행위주, 서술어'로 구성된 전형적인 피동문이라 할 수 있다. (7ㄱ)에서 (7ㄴ)으로

14) 양금평(2013)은 (6ㄱ, ㄴ, ㄷ)의 '-에'와 '-로'를 행위주 표지로 파악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15) 도혜진(2009)에 따르면 피동 표현에서의 '被'의 출현은 이미 한대(漢代)에 보편적으로 사용되었지만, '讓', '叫', '給'의 피동 용법 출현은 1900년대 초에야 나타났다고 한다. '讓', '叫', '給'는 사동이나 다른 용법으로 더 많이 사용되어 피동의 사용이 미미하다가 점점 그 사용 범위가 넓어졌다.

될 때 주어 ‘警察’, 서술어 ‘抓’ 그리고 목적어 ‘小偷’는 행태 변화가 없는데 오직 개사 ‘被’가 피동 표지로 행위주 앞에 붙는다. (7ㄴ)에서 ‘被警察’는 서술어 ‘抓’의 부사어 역할을 한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이라면 (7ㄴ’)처럼 피동 표지 ‘被’만 남기고 행위주를 생략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의 ‘被’에 대해 (7ㄴ)처럼 명사 앞에 쓰일 때는 개사로, (7ㄴ’)같이 동사 앞에 쓰일 때는 조동사로 본 黎锦熙(1924: 43-44) 이후 지금까지 학자마다 여러 입장을 보인다.<sup>16)</sup> 본고에서는 (7ㄴ)나 (7ㄴ’)의 ‘被’를 모두 개사로 보고자 한다.<sup>17)</sup> 다음을 보자.

- (8) ㄱ. 杯子被他打破了。(컵이 그에게/그에 의해 깨졌다.)  
 ㄴ. 杯子被打破了。(컵이 깨졌다.)

(8ㄱ, ㄴ)은 모두 피동문이다. (8ㄱ)은 앞 (7ㄴ)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중국어 피동문이다. (8ㄴ)은 앞 (7ㄴ’)과 마찬가지로 행위주만을 생략한 중국어 피동문으로 (8ㄱ)과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대부분 화자와 청자가 행위자에 대해 서로 알고 있거나 화자가 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행위주를 생략하여 표현한 것이다. 곧 선행 체언이 피동문의 행위주로 기능하게 하는 피동 표지 ‘被’가 개사인 (7ㄴ), (8ㄱ)과 마찬가지로 그 선행 체언이 생략되어 동사 앞에 나타나게 된 (7ㄴ’), (8ㄴ)의 ‘被’ 또한 피동 표지로서 개사인 것이다. 결국 (7ㄴ’), (8ㄴ)에서 피동 표지 ‘被’는 동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숨어 있는 체언과 결합하는 것으로 피동 표지이다.

▶ ‘让’, ‘叫’

현대 중국어에서 ‘让’, ‘叫’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동사’, ‘개사’로서

16) 孫順姬(2008)에 따르면 피동 표지 ‘被’의 품사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荆贵省	易国杰	姜宝琦	许嘉璐	徐行达	吴度锋	宋学衣
행위주 앞에	介词	介词	介词	助动词	助动词	介词	助动词
동사 앞에	助词	介词	介词	助动词	助动词	介词	助动词

17) 刘月华·潘文娛·故韦华(2001)과 이기영(2001) 또한 본고와 궤를 같이한다.

의 쓰임을 나타낸다.<sup>18)</sup> 본고에서는 피동 표지로 사용한 ‘让’, ‘叫’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 (9) ㄱ. 他打破了杯子。(그가 컵을 깬다.)  
 ㄴ. 杯子让/叫他打破了。(컵이 그에게/그에 의하여 깨졌다.)  
 ㄴ'. \*杯子让/叫打破了。(컵이 깨졌다.)

(9ㄱ)은 능동문이고, (9ㄴ)은 이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피동 표지 ‘让’, ‘叫’자로 구성된 피동 표현이다. (9ㄴ) 또한 앞서 살핀 (7ㄴ), (8ㄱ)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중국어 피동문이다. 물론 피동 표지 ‘让’, ‘叫’는 ‘被’와 호환 가능하다. 그런데 (7ㄴ'), (8ㄴ)과 마찬가지로 행위주만을 생략한 (9ㄴ')은 이들과 달리 비문이 된다.

한편, 중국어에서 사동의 의미를 겸하는 ‘让’, ‘叫’는 ‘被’와 또 다른 차이를 보인다. ‘让’, ‘叫’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면 동사의 용법과 혼동되나 ‘被’는 그렇지 않다.<sup>19)</sup> 다음을 보자.

- (10) 我让/叫他说了幾句。  
 ㄱ. 我允许他说了幾句。(나는 그에게 몇 마디 하게 (허락)했다.)  
 ㄴ. 我被他说了幾句。(나는 그에게 몇 마디 꾸중을 들었다.)

(10)은 ‘让’, ‘叫’로 구성된 문장이다. 이는 (10ㄱ, ㄴ)과 같이 2가지 의미를 나타낸다. (10)처럼 ‘让’, ‘叫’ 뒤에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가 오면 (10ㄱ)처럼 사동의 의미나 (10ㄴ)처럼 피동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유정성] 행위주인 경우 ‘让’, ‘叫’로 구성된 피동 표현은 ‘被’자 피동 표현과 달리 중의성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룬다.

#### ▶ ‘给’

현대 중국어에서 ‘给’는 일반적으로 문장 속에서 ‘동사’, ‘개사’, ‘조사’로서의 쓰임을 나타낸다.<sup>20)</sup> 그리고 ‘给’는 개사로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나타

18) 吕叔湘(1999: 225-461) 참조.

19) 吕叔湘(1980) 참조.

낸다.<sup>21)</sup> 본고에서는 피동 표지로 사용한 ‘給’자만을 대상으로 살펴보겠다.

- (11) ㄱ. 警察抓住了小偷。(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ㄴ. 小偷給警察抓住了。(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ㄴ'. 小偷給抓住了。(도둑이 잡혔다.)

(11ㄱ)은 능동문이고, (11ㄴ)은 그에 대응하는 피동문으로 피동 표지 ‘給’자로 구성된 피동 표현이다. (11ㄴ) 또한 앞서 살핀 (7ㄴ), (8ㄱ), (9ㄴ)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중국어 피동문이다. 물론 피동 표지 ‘給’는 ‘讓’, ‘叫’와 마찬가지로 ‘被’와 호환 가능하다. 그리고 피동 표지 ‘讓’, ‘叫’가 쓰인 (9ㄴ)과 달리, (11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被’가 쓰인 (7ㄴ), (8ㄴ)과 마찬가지로 ‘給’만 남기고 행위주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런데 피동 표지 ‘被’가 쓰인 경우와 ‘給’가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기도 한다.

- (12) ㄱ. 房子被他卖了。(집이 그에 의해 팔렸다.)  
 ㄴ. 房子給他卖了。( // / 집은 그를 대신해서 (내가) 팔았다.)

위 두 문장은 ‘집이 그에 의해 팔렸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도 하나 (12ㄴ)은 화자의 의도에 따라 ‘房子替他賣了(집은 그를 대신해서 (내가) 팔았다.)’를 뜻하기도 한다.<sup>22)</sup> 즉, (12)와 같이 [-유정성]의 피동주, [+유정성]의 행위주인 경우 ‘給’자 피동문은 중의성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20) ‘給’에 대한 설명은 呂叔湘(1999)과 <新华字典>(2013)이 조금 차이가 있다. 呂叔湘(1999)에서는 ‘동사’, ‘개사’ 2가지 용법만 존재한다고 하였고, <新华字典>(2013)에서는 ‘동사’, ‘개사’, ‘조사’ 3가지 용법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21) 毛海燕(2014)에 따르면 呂叔湘(1980: 197-198)은 개사 ‘給’가 나타내는 문법적 의미를 6가지로 제시하였다.

22) 자세한 설명은 孫順姬(2008) 참조.

### 3. 한국어 행위자 표지와 중국어 피동 표지 대조

지금까지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한·중 피동 표현에서 한국어 행위주 표지와 중국어 피동 표지는 각각 행위주와 결합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둘을 비교 대조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고찰해 보자.

먼저 앞에서도 예를 통해 확인한바, 두 언어의 유형적 특징에 따라 한국어 행위주 표지는 행위주 뒤에 붙는 반면 중국어 피동 표지는 행위주 앞에 붙는다. 그런데 다음 (13ㄱ')과 (13ㄴ')에서 알 수 있듯이 행위주가 생략된 피동 표현의 경우, 한국어 행위주 표지는 행위주와 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피동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한다. 물론 앞 (9ㄴ')에서도 살핀 대로 ‘让’, ‘叫’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 (13) ㄱ. 토끼가 호랑이에게/한테 먹혔다.  
 ㄴ. 兔子被/让/叫/给老虎吃了。  
 ㄱ'. 토끼가 먹혔다.  
 ㄴ'. 兔子被/给吃了。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는 원래 동사에서 문법화(虛化)되어 개사로 문장에서 쓰인다. 특히 ‘被’는 동사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피동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99%로 온전한 피동 표지라고 했다. 그러므로 중국어 피동 표현에서는 ‘被’자 피동문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런데 일부 한국어 피동 표현은 중국어 ‘被’자 피동문으로 표현하면 비문이 된다.

- (14) ㄱ. 토끼가 호랑이에게/한테 먹혔다.  
 兔子被老虎吃了。  
 ㄴ. 많은 도로가 폭우에/로 파손되었다.  
 许多道路被暴雨冲坏了。  
 ㄷ. 박 실장은 회장에게/한테 재산을 몰수당했다.  
 朴室长被会长没收了财产。  
 ㄹ. 편지가 나에게 찢어진다.  
 信被我撕碎了。

ㄱ. 편지가 나에게 잘 쓰였다.

\*信被我写好了。

信我写好了/我写好信了。

ㄴ. 편지가 나에게 다 쓰였다.

\*信被我写完了。

信我写完了/我写完信了。

(14ㄱ-ㄴ)은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로 구성된 한국어 피동 표현으로 중국어 ‘被’자 피동문과 대응된다. 그러나 (14ㄱ, ㄴ)은 ‘被’자 피동문과 대응되지 않는다. ‘被’는 본래 동사로서 ‘입다, 당하다’의 의미였다. 문법화(虛化)를 통하여 이제 동사의 의미를 거의 상실하였지만 좋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와 결합하는 데는 여전히 제약을 받는다. (14ㄱ, ㄴ)에서 서술어 ‘写’ 앞에 ‘好, 完’와 같이 긍정적인 느낌(의미)을 표현하는 부사어가 나타나 ‘被’자 피동문으로 대응하면 비문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信我写好了.’나 ‘我写好信了.’, ‘信我写完了.’나 ‘我写完信了.’처럼 능동문 형식으로 표현한다.

한편, 중국어 피동 표지는 피동주, 행위주뿐만 아니라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 먼저, 이미 앞에서 살폈듯이 아래 (15)와 같이 ‘행위주의 유정성 유무’에 따라 행위주 표지를 선택하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피동 표지는 행위주의 유정성에는 비관여적이거나 ‘행위주 유무’에는 관여적이다.

(15) 그 사람은 경찰에게/경찰에 쫓기고 있다.

那个人正在被警察追赶。

(16) ㄱ. 小偷被/让/叫/给警察抓住了。(도둑이 (경찰에게/경찰에) 잡혔다.)

ㄴ. 小偷被/给抓住了。

ㄷ. \*小偷让/叫抓住了。

(16ㄱ)은 전형적인 중국어 유표지 피동 표현 구조로 피동 표지 ‘被/让/叫/给’는 호환 가능하다. 그런데 행위주 ‘警察’가 생략되는 경우 (16ㄴ)과 달리 (16ㄷ)은 비문이 된다. 이는 ‘被’, ‘给’가 피동주가 어떤 결과나 상황에 처해 있음을 나타내는 데 중점을 두어 그 의미를 맥락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나,

‘讓’, ‘叫’는 본래의 사역 동사적 느낌이 강하여 피동 표현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중국어 피동 표지는 ‘피동주의 유정성 유무’에 따른 제약을 보이기도 한다. 오로지 문법 형태로서 조사 역할만 담당하는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달리 중국어 피동 표지는 개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실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때에 따라 실사와 개사 역할을 겸하고 있다.<sup>24)</sup> 이를테면 피동 표지 ‘让’, ‘叫’는 사동의 의미를 겸하고, ‘给’는 수여의 의미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피동 표지들은 피동주가 [-유정성]인 경우 제약을 받는다.

(17) ㄱ. 직원이 사장님에게/한테 잘렸다.

职员被/让/叫/给老板解雇了。

职员被/让/叫老板(给)解雇了。

职员遭/受到了老板的解雇。

ㄴ. 이 어려운 문제가 철수에게/한테 풀렸다.

这个难题被/让/叫哲秀解决了。

?这个难题给哲秀解决了。

这个难题被/让/叫哲秀(给)解决了。

\*这个难题遭哲秀解决了。

ㄷ. 수건이 나에게/나에 의해 빨랫줄에 널렸다.

毛巾被我晾在了晾衣绳上了。

?毛巾让/叫我晾在了晾衣绳上了。

?毛巾给我晾在了晾衣绳上了。

毛巾让/叫我给晾在了晾衣绳上了。

?毛巾遭我晾在了晾衣绳上了。

(17ㄱ)은 한·중 피동 표현의 대응 관계를 보여 주는 전형적인 예로, 앞에서 언급한바 중국어 ‘遭(조), 受(수)’류 피동 표현도 가능하다. ‘职员被/让/叫老板(给)解雇了.’는 ‘피동 표지...조사(助詞)’ 구조로 된 유표지 피동 표현

23) 張萬禾(2007) 참조.

24) 중국어 개사의 연원에 대해서는 朱德熙(2002: 174)와 黃伯榮·廖序东(1996) 등을 참조.

으로 ‘給’는 조사로서 문장의 피동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아 생략도 가능하다. 생략하면 ‘职员被/叫/让老板解雇了.’와 동일하다. 이는 (17ㄴ)의 ‘这个难题被/让/叫哲秀(给)解决了.’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7ㄴ)도 한국어의 경우 전형적인 피동 표현으로 피동주 ‘이 어려운 문제’는 [-유정성], 행위주 ‘철수’는 [+유정성]을 지니고 있다. 이 중국어 대응 표현은 (17ㄱ)의 경우와 다르다. 먼저 수여의 의미를 겸하는 ‘給’로 구성된 피동 표현 ‘这个难题给哲秀解决了.’의 경우, ‘이 어려운 문제는 철수에게 주고 해결해 달라고 했다’라는 의미도 포함할 수 있어 정확한 피동 의미를 표현할 수 없다. ‘給’와 비슷하게 피동 표지 ‘让’, ‘叫’도 사동의 의미를 겸하는데 ‘給’와 달리 정확하게 피동 의미를 표현할 수 있다. [-유정성]인 피동주 ‘这个难题’가 행위주 ‘哲秀’를 시킬 수 없고 ‘让’, ‘叫’가 ‘了’ 같은 동태 조사와 같이 나오는 경우는 사동 의미가 아닌 피동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서술동사로서 본시 ‘당하다, 입다, 받다’와 같은 피동 의미를 지닌 ‘遭’의 경우는 뒤에 나타난 ‘解决’와 의미 충돌을 일으켜 중국어에서는 완전한 정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7ㄷ) 또한 [-유정성]의 피동주와 [+유정성]의 행위주가 있는 한국어 피동 표현이다. 이의 중국어 대응 표현 ‘毛巾让/叫我晾在了晾衣绳上了.’는 피동 의미뿐만 아니라 ‘수건은 (누군가가) 나에게 빨랫줄에 걸게 하였다.’처럼 사동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어 의미 혼란을 일으킨다. 이때 ‘毛巾让/叫我给晾在了晾衣绳上了.’에서 보듯이 조사 ‘給’를 써서 피동의 의미만을 표현할 수 있다. ‘毛巾给我晾在了晾衣绳上了.’ 또한 피동 의미보다는 ‘수건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빨랫줄에 걸어 줬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遭’의 경우는 뒤 ‘晾’과의 결합 여부를 문맥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에 한국어 대응 표현으로서의 선호도 면에서 훨씬 뒤쳐져 있다.

한편, 한국어 ‘받다’류 피동 표현에서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피동 표현에서는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에 따른 피동 표지 사용에 제약을 보인다.

(18) ㄱ. 무단 조퇴한 그는 회사 측에 처벌받았다.

无故早退的他从公司那儿受到了处罚。

无故早退的他被/让/叫/给公司方处罚了。

- ㄴ. 그들은 상사에게 복종을 강요받았다.  
\*他们从上司那儿受到强行要求服从。  
他们从上司那儿被强行要求服从。  
他们被/让/叫/给上司强行要求服从了。

(19) ㄱ. 철수가 선생님에게 칭찬받았다.

哲秀从老师那儿受到了表扬。  
\*哲秀被/让/叫/给老师表扬了。

- ㄴ. 그 사람이 학생들에게 존경받았다.  
那个人从学生那儿受到了尊重。  
\*那个人被/让/叫/给学生尊重了。

ㄷ. 아버지는 김 선생님에게 다리를 치료받았다.

爸爸从金医生那儿受到了腿部治疗。  
\*爸爸被/让/叫/给金医生治疗了腿部。

(18), (19)는 한국어 ‘받다’류 피동 표현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피동 표현이다. 중국어에서 피동 표지 ‘被/让/叫/给’를 통해 피동 표현한 (18)과 달리 (19)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사 ‘从’이 쓰인 ‘从+명사+那儿’ 구성으로 나타나고 피동 의미는 ‘受到’라는 서술어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중국어에서 (19)의 ‘表扬’, ‘尊重’, ‘治疗’ 등이 긍정적 어휘이고 (18ㄱ)의 ‘处罚’과 (18ㄴ)의 ‘强行要求’는 부정적 어휘라는 것이다. 그런데 (18ㄱ)은 피동 표지 ‘被/让/叫/给’를 통한 피동 표현 그리고 개사 ‘从’이 쓰인 ‘从+명사+那儿’ 구성 및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受到’라는 서술어를 통한 표현 모두 가능하나, (18ㄴ)의 경우는 비문이 된다. 이는 중국어에서 맥락에 따라 긍정적 의미로도 받아들이는 (쌍방적인) ‘处罚’과 달리 (일방적인) ‘强行要求’는 항상 부정적 의미만을 표현하고 ‘受到’가 긍정적 어휘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18ㄴ)의 중국어 대응 표현으로 ‘受到’ 대신 ‘被’와 결합하여 ‘他们从上司那儿被强行要求服从.’라 하면 적절한 결과가 나온다.

#### 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에 대해 그 분포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형태들을 비교 대조를 통하여 그 대응 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보았다.

한·중 피동 표현에서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중국어 피동 표지 ‘被/让/叫/给’는 각각 행위주와 결합해서 부사어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언어의 유형적 특징에 따라 한국어 행위주 표지는 행위주 뒤에 붙는 반면 중국어 피동 표지는 행위주 앞에 붙는데, 행위주가 생략된 피동 표현의 경우, 한국어 행위주 표지는 행위주와 같이 나타나지 않지만 중국어에서는 피동 표지는 그 형태를 유지한다.

한편, 중국어 피동 표지는 피동주, 행위주뿐만 아니라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에 대한 제약을 많이 받는다. 먼저, ‘행위주의 긍정성 유무’에 따라 행위주 표지를 선택하는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 피동 표지는 행위주의 긍정성에는 비관여적이나 ‘행위주 유무’에는 관여적이다. 또한 중국어 피동 표지는 ‘피동주의 긍정성 유무’에 따른 제약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문법 형태로서 조사 역할만 담당하는 한국어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와 달리 중국어 피동 표지는 개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는 실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때에 따라 실사와 개사 역할을 겸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받다’류 피동 표현에서 행위주 표지 ‘에게(한테), -에, -로’는 그대로 사용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문장에 나타나는 어휘의 의미에 따른 피동 표지 사용에 제약을 보인다. 즉, ‘받다’류 피동 표현에 대응하는 중국어에서는 긍정적 어휘인 경우 개사 ‘从’이 쓰인 ‘从+명사+那儿’ 구성 및 피동 의미를 나타내는 ‘受到’라는 서술어를 통하여 피동 표현하는데, 이는 부정적 어휘인 경우 위 구문에서 ‘受到’ 대신 피동 표지 ‘被/让/叫/给’를 사용하거나 일반적인 중국어 피동 표현의 피동 표지 ‘被/让/叫/给’을 통한 피동 표현과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대조 언어학 관점에서 한국어 행위주 표지와 중국어 피동 표지 형태들에 대해 비교 대조를 통하여 그 대응 관계를 고찰한 본고가, 한국어

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나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가 해당 문법 항목을 전면적으로 이해하고 오류 현상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 참고문헌

-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 구본관 외 4인, 『한국어 문법 총론 I』, 집문당, 2015.
- 국어국립원,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1999.
- 도혜진, 「현대 중국어 ‘被’, ‘讓’, ‘叫’, ‘給’ 피동문 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毛海燕, 「현대중국어 ‘給’의 용법에 따른 활용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슬지엔,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중국어 개사의 대조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양 설, 「한·중 피동문 대조연구-중국어 被자문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양금평, 「한 중 피동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 언어정보개발연구원, 『연세한국어사전』, 연세대학교, 2002.
- 오문의, 「주덕희 저, 허성도 역, 《현대 중국어 어법론》」, 『중국어문학』 29권, 영남중국어문학회, 1997.
- 왕진곤, 「한중 피동 표현 대조 연구 : 피동문 유형 대조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왕차오, 「한중 피동문 대비와 학습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우동동, 「한국어와 중국어 피동 표현 대조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기영, 「현대중국어 피동표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張京青, 「한국어 피동 표현 사용 실태 및 교육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제 영, 「한(韓), 중(中) 피동문(被動文)의 표지(標識)에 관한 연구(研究)」, 『문창어문논집』 47권, 문창어문학회, 2010.
- 허성도 역, 『현대 중국어 어법론』, 사람과 책, 1997.
- Wang Duan, 「한국어와 중국어의 피동 표현 대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

사학위논문, 2012.

郭晓玮, 「留学生学习汉语被动句的偏误分析」, 天津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乔莎莎, 「有标志被动句的分析」, 黑龙江大学 硕士学位论文, 2015.

黎锦熙, 『新著国语文法』, 商务印书馆, 1924.

吕叔湘, 『现代汉语八百词』, 商务印书馆, 1980.

\_\_\_\_\_, 『现代汉语八百词(增订本)』, 商务印书馆, 1999.

刘月华·潘文娉·故韦华, 『实用现代汉语语法(增订本)』, 商务印书馆, 2001.

方师鐸, 『国语结构语法初稿』(中册), 东海大学出版社, 1979.

商务印书社, 『新华字典』, 商务印书社, 2013.

孙顺姬, 「现代中国语‘给’被动文研究」, 延世大学 硕士学位论文, 2008.

張萬禾, 「被, 給, 叫, 讓’的意願性與其實語從缺的關係」, 汉字文化 2007年 第1期, 2007.

张兴旺, 「现代汉语标志型被动句研究」, 内蒙古师范大学 硕士研究论文, 2003.

朱德熙, 『20世纪现代汉语语法八大家』, 东北师范大学出版社, 2002.

\_\_\_\_\_, 『语法修辞讲话』, 辽宁教育出版社, 2002.

黄伯荣·廖序东, 『现代汉语』, 高等教育出版, 1996.

## ❖ ABSTRACT

## A Contrastive Study on Korean and Chinese Passive Expression: Centered on Korean Act Subject Marks and Chinese Passive Marks

Yu, Tong–Tong  
Kim, In–Kyun

This paper is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Korean act subject marks ‘-에게(한테), -로, -에’ and Chinese passive marks ‘被[bèi]/让[ràng]/叫[jiào]/给[gěi]’. Each distribution’s aspects and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and corresponding relationships were analyzed by comparison of these forms.

The method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focused on three aspects such as tangible characteristics of the two languages, selective restrictions on the ‘act subject’ or ‘passive subject’ in the passive expression, and constraints on the use of the act subject (passive) marks in the Korean passive expression by ‘받다’.

In this comparative analysis Korean act subject markers ‘-에게(한테), -로, -에’ and Chinese passive markers ‘被/让/叫/给’ are always as an adverb in passive expression in combination with the act subject. Despite this common point, some differences were revealed relative to the use of the two languages.

First, we reveal that the ‘act subject’ and the conjoined manner follow the passive expression according to characteristics of the two languages. In addition, the act subject marks of Korean passive expressions ‘에게/한테, -에/로’ only serve as an investigative role. They are limited only to [ $\pm$ animate] of the act subject. But Chinese passive markers ‘被/让/叫/给’ are often restricted by [ $\pm$ animate] of passive subject,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act subject. In the Korean passive expression by ‘받다’, it is used as act subject

marks ‘에게/한테, -에/로’ but the Chinese passive marks are restricted by the meaning of lexical items in a sentence.

Key Words : passive expression, comparative analysis, act subject marks, passive marks, correspondence relationship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